

□ 중앙동

*과전동

영천지역의 여러 동네중 가장 지역이 좁은 곳이다. 이 마을은 척박한 산비탈을 활용하여 농지를 만든곳 이라 하여 속칭 조밭골 혹은 울전이라 불린 곳과, 성내와 과동의 중간지점에 작은 산등성이로 구성되어 두 지역 어느곳이나 속할 수 있다 하여 구전된 쌍속골로 구성되었다. 즉 쌍속골에 소재한 서과동(西果洞), 조밭골에 속한 양구동(羊邱洞)과 지침동, 창구동과 경계를 이룬 일부 지역을 할속받아 명명된 동네다. 원래 양구동, 서가동, 지침동은 내서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과 함께 영천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구성된 중앙동에 속하였다.

*녹전동

원래 녹전동은 여러 이름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다. 이를테면 원녹전, 활수, 석동, 창녕골, 가장골, 대추골, 서당골, 예정곡 등이 그것이다. 원녹전은 일명 창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정간(鄭幹)선생이 청백리로 녹선되면서 나라에서 받은 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활수는 활처럼 물길이 굽어 돌아간다는 자연형태를 보고 만들어진 이름이다. 즉 이를 합하여 녹전 1동으로 하였다. 석동은 비석이 있는 지역이라 칭하였고, 창녕골은 창녕 성씨가 살았던 지역이라 하여 지칭되었고, 가장골은 이곳에 큰 웅덩이가 있어 용이 승천한 지역이라 하여 불렀는데 이를 통칭한 것이 녹전 2동이다. 또 대추골은 대추나무가 있던 지역으로 임진왜란때 전몽용선생의 아들 5형제가 의병활동을 하여 아름다운 대추나무에 다섯개의 관인을 걸었다는 사록과 관련하여 알려진 이름이고, 서당골은 서당이 있었던 지역이며 , 예정곡은 전삼성 선생이 문인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며 예절을 연수시킨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합한것이 녹전3동이다.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도림동

도림동은 원래 숫골, 못밑, 후리동, 흙골, 뱀밭골, 곧은골, 중골, 선창, 천왕지 팔밭등 여러 지역의 자연 명칭이 어우러져 이뤄진 마을이다. 숫골은 옛날 숫을 구웠던 이름이고, 후리동은 그물을 던지는 형세라 하여 붙여졌고, 선창은 마을 앞에 복천이 흐르므로 나룻배가 왕래하는 나루터라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또 천왕지는 성황당이 있어 생겨진 이름이고, 화전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하여 팔밭이라 했다. 이러한 여러 지역이 근대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면서 도림동, 직동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개편으로 명산면에 속해있던 도림동이 신설된 화동면에 편입되고 주위의 녹전동 일부와 고현면 하흥동을 합하게 되었다. 그 후 화동면이 폐지되고 영천면에 속하였고, 다시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명산동에 속하게 되었다가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매산동

이 마을은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형이 목마른 말이 물을 찾는 형세라 하여 불린 탕마(湯馬), 찾아온 새가 울고 지나갈 정도로 척박한 지역 이란 뜻으로 지어진 하명(下鳴),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월계(月溪), 고분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생긴 구무덤등이다. 즉 구무덤과 월계를 합하여 매산 1동이 되었고, 하명과 갈마을 합하여 매산 2동이 되었다. 근대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신녕군 대양면에 속하였으며 1914년 행정개편 당시 신녕군은 폐지되고 신설된 화산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기존 하명동, 월계동, 갈마을, 구무덤을 비롯하여 대천동(大川洞)일부와 녹전동 일부가 포함되었다. 1983년에는 다시 영천군 화산

면에서 영천시 명산동으로 개편 소속되었다가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문내동**

마현산(馬峴山) 남쪽 비탈에 자리잡은 성내 5개동 가운데 동쪽으로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도수장골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문외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성내의 중심지인 창구동과 접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남천이 흐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마현산 자락을 접하고 있다. 영천지역에서는 창구동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였다. 옛날 동헌을 중심으로 일대를 관아터라 부르고 군청 동편은 형방터, 군청 서편은 이방터라 지칭되고 있었다. 또한 미륵불이 있던 산마루라 하여 부처만당, 개화시대에 염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여 불린 염매시장을 통틀어 문내동이라 하였다.

***문외동**

마현산 주봉을 중심으로 남쪽 비탈을 성내(城內)라고 하는데 동쪽 도수장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일대를 문외동이라 한다. 북쪽으로는 마현산 줄기를 길게 배경을 하고 남쪽으로는 남천과 연접해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사동, 망정동과 연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성벽과 사이를 두고 있다. 물론 지금은 도시개발에 의해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대체로 평지를 이루어 문내동과 연결되어 있다. 문외동은 영천동문 밖 동네라고 하여 문외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동네는 옛날 도수장골과 성 밖 시민들의 교육기능인 서당이 있었다고 일컫는 서당골과 용이 승천한 지역이라 불린 용당골로 구성된 마을이다.

***오미동**

오미동은 네개의 부락이 형성된 마을이다. 속칭으로 삼귀(三歸), 조미(鳥味), 절골, 점골등이다. 그 외에도 연악, 움터골등이 있으나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삼귀는 학 세마리가 살다가 어느 해 모두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아 상스러움이 기울어졌다고 안타까워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외머리는 지형지세가 마치 까마귀의 머리 혹은 까마귀의 꼬미(鳥尾)라고도 불렀으며 글자의 변화로 오미(五味)라고 지칭되었다 한다. 또한 절골은 사찰이 있었던 지역이라 유래되었고, 점골은 도요지가 있던 지역이라서 연유된다.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창구동**

예부터 영천지역의 가장 중심부를 이룬 동네다. 북쪽으로는 마현산 주봉이 버티고 있고 남으로는 남천이 흐르고 있다. 동쪽으로는 문내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교촌동과 과전동을 접하고 있다. 특히 이 부락은 남, 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옛날 남문과 북문이 모두 소재한 지역이다. 정확한 문헌은 없지만 제도적 행정체계가 확립된 후로는 영천지역의 중심역할을 한 동네다. 이 지역에서는 진청마당, 개웅굴샘, 옥터, 객사터, 성문터, 형방터, 호방터 등의 속칭 지역이 많은 곳이었다. 문헌상 존재하는 행정명칭으로는, 관아 주위로 형성된 남쪽 지역인 관덕동(官德洞)과, 객사와 관청주변으로 이룩된 북부지역인 창구동이 있다.